

# 익산시, '1시민 1미술' 시대 본격화

일상 속 시민 취미 미술프로젝트 상반기보다 2배 확대... 수채화·서예·문인화 분야 수강생 모집

익산시가 '1시민 1미술'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일상 속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1시민 1미술' 프로젝트는 '1시민 1행복' 찾기의 일환으로 시민들과 강사를 매칭시켜 누구나 미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시는 '1시민 1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참여도에 부응하고자 상반기보다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채화, 서예(캘리그래피 포함), 문인화 등 3개 분야에 상반기 19개 팀에서 하반기에는 40개팀으로 확대해 이달 2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18세 이상의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같이 배우고 싶은 지인, 가족, 친구들과 5~10인의 팀으로 구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팀은 심사를 거쳐 강사들과의 매칭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미술 강습은 8월부터 11월까지 총 12주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장소는 시민들의 교류와 참여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마을의 공공장소를 위주로 정하고, 장소제공 기관 및 강사와 협의 후 수강팀이 결정한다.

'1시민 1미술' 프로젝트는 시민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돼 시·공간적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서 배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했던 미술 강습에 진입장벽을 낮춰 일상 속 문화실현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이 일상 속에서 활성화



익산시가 '1시민 1미술'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일상 속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돼 문화예술 종사자,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도 이끌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앞으로 1시민 1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의 그동안 배운 실력을 뽐내는 작품발표회(전시회)를 올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미술 수업을 태어나 처음 받아보았는데 너무 재밌었다", "1시민 1미술 수업을 통해 강연기 우울증을 극복했다", "몸이 불편해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수업을 우리 주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해 높은 만족을 이끌어냈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며 "일상에서 이웃과 문화예술을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ulturecityiks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신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상세 문의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070-4172-6468)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북대, 문화재수리기능자 전국 최다 합격

한식목공 등 13명 합격자 배출... 한옥교육 메카 재확인

전북대학교 한옥건축학과와 문화재보존사업단, 그리고 한옥사업단은 지난 4월 시행된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서 한식미장, 한식목공(대목수), 번외와공, 조경공, 실측설계사보 등 모두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한식목공(대목수) 자격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합격생을 배출하며, 전북대가 명실상부한 한옥교육의 메카임을 재확인했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한식미장, 한식목공, 번외와공 등 총 24개의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합격한 이들은 전국 최고의 한옥건축 실습실이 조성돼 있는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연습을 해왔고, 문화재보존팀은 평상시 문화재 관리뿐 아니라 기와나 벽체, 목부재 보수 등 경미한 수리까지 하며 실무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키웠다.

특히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는 여러 기



관과의 협조를 통한 파견 교육과 센터 자체교육을 실시했고, 매주 토요일에는 준비하는 자격증발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에 힘써왔다.

전북대 한옥사업단을 총괄하고 있는 남해경 교수(건축공학부)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배출하게 된 것은 우리 전북대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한옥교육기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교육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은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군산시립예술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군산시가 군산시립예술단 공연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3 군산시립예술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군산시립예술단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자 마련했다.

질문은 △관람동기, △관람 만족도, △연주회 망 장르, △개선사항 등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설문조사는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7월~9월 시립예술단 공연을 찾는 시민

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이처럼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군산시립예술단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은 물론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해 향후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일방적인 공연을 벗어나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지향적인 시립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뮤지컬 '파리넬리' 7~8일 익산예술의전당서 개최

오페라 가수 파리넬리의 삶 그려

18세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최고의 오페라 가수 파리넬리의 삶을 웅장한 감동으로 엮어낸 '뮤지컬 파리넬리'가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뛰어난 음악성과 화려한 볼거리로 익산 시민들에게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여 올 여름 초입의 기대작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페라 가수 파리넬리의 화려한 삶에 감춰진 슬픈 운명을 그린 이 작품은 16인조의 오케스트라와 21명의 배우가 열연하는 환상의 무대를 선사한다.

'올레 하소서(Lascia Chi'o Piangere)' 등 영혼을 울리는 헨델의 아리아가 주옥같은 멜로디로 재편곡 되어 관객들을 맞이하는 등 창작뮤지컬의 결정판을 보여준다.

이번 작품은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만큼 기존 캐스트와 새로운 캐스트가 함께 어우러진



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일직 주교의 눈에 띄어 열두 살에 거세 당해 카스트라토(남성 소프라노)가 된 파리넬리역에는 초연부터 함께한 천상의 목소리 루이스 초이와 신예 석재승이 함께 한다.

리카르도 역의 이준혁, 안젤로 역의 여은, 레리핀치 역의 유성재, 헨델 역의 김주호·이한밀 등 탄탄한 실력과 배우들이 출연하여 박찬 감독과 강렬한 에너지를 선사한다.

뮤지컬과 클래식을 넘나들며 웅장한 감동을 전하는 '뮤지컬 파리넬리'는 제9회 더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의 창작 뮤지컬상과 신인남우상, 음악감독상 등 3개 부분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중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 티켓은 R석 60,000원, S석 40,000원이다.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면 공연 전날까지 3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전화(063-859-3254)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부천 공연에 이어 익산예술의전당 공연을 시작으로 공주문화예술회관, 당진문화예술회관, 강릉아트센터, 군포문화예술회관, 수원SK아트리움, 오산문화예술회관, 의정부예술의전당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북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5~21일까지 '2023 전북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홈페이지 및 APP개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기술기반 인프라 도입, 스마트스토어·라이브 커머스 등 같은 신규 채널 확대 등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을 위한 자금과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 융복합 등 관광 관련 사업

을 3년 이상 영위 중인 전라북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총 3개 기업을 선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2,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차등지급 된다.

참가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 작성한 후 이메일(ml23@jct.or.kr)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http://www.jct.or.kr))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